

〈일반논문〉

중국 신문에 보이는 3.1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 - 북경『국민공보』를 중심으로 - *

金周溶 **

〈목차〉

- I. 머리말
- II. 3·1운동의 원인 : 일제의 폭정 고발
- III. 3·1운동의 전개과정 : 독립선언의 정당성
- IV. 3·1운동의 영향 및 의의
- V. 맺음말

[국문초록]

3.1운동에 대한 외국의 언론보도는 한국독립운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이 글은 일본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선언하기까지의 그 원인과 과정을 중국 북경에서 발행한 『國民公報』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발행되었던 조선총독부 기관지 『每日新報』에서 왜곡되었던 모습을 『국민공보』를 통해서 독립선언의 원인 가운데 가장 컸던 일본제국주의의 학정과 3.1운동 전개과정에서 벌어졌던 각종 반인륜적인 행위를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탄압과 학살 속에서도 혁명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갔던 한국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사업임(NRF-2017S1A6A3A02079082)

**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인들에게 대한 평가와 중국인들이 향후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 신문은 3.1운동을 단순히 보도만 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처지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반제국주의에 중국이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3.1운동을 통해서 전달하려 했던 것 같다. 중국 지식인들은 이미 한국의 독립운동이 자신들과 밀접하였음을 이미 깨닫고 있었던 것이다.

□ 주제어

3.1운동, 국민공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선언, 파리강화회의

I. 머리말

대저 나라가 망한 지 10년이 못 되어서 이 같은 대혁명이 일어난 일은 동서고금의 역사에 보기 드문 일입니다. 세계의 같은 인류로서 누군들 귀국의 독립을 위해 원조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중국과 한국은 형제요 脣齒라 한국이 망하면 중국도 또한 병들게 됩니다. 한국이 독립하지 못하면 중국도 독립을 보전하지 못할 것은 형세상 필연입니다.¹⁾

1919년 7월 심산 김창숙이 상해에서 孫文을 상견했을 때 나온 대화 내용이다. 쑨원은 3.1운동을 대혁명으로 표현하면서 한민족의 거대한 함성이자 역사의 큰 물줄기를 바꿔놓은 대역사로 평가하였다. 3.1운동은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전개되었으며, 전 계층이 참여한 세계민족운동사의 보기 드문 한편의 감동드라마였다. 이에 대한 세계 각국의 언론은 예사

1) 心山思想研究會, 『金昌淑文存』, 成均館大出版部, 1989, 204쪽.

롭지 않은 관심을 표하였다.²⁾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자 대한민국임시정부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독립운동사에서 3·1운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한민족의 역동적 표현의 결과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심지어 중국의 영원한 총리라고 칭송받고 있는 周恩來도 일본에서 유학할 때 3·1의 열기를 느끼고자 서울을 방문하지 않았는가.³⁾

1919년 3월 1일이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날 일제에게 넘겨준 주권을 찾기 위하여 전 민족이 독립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3·1운동에서 보여준 성숙된 민의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성립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1운동의 적장자이다. 1918년 상해에서 신한청년당이 성립되면서 제1차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세 속에서 독립선언과 함께 정부수립이 추진되었던 것이다. 민족대표의 대표성을 띠고 상해에 파견된 현순은 독립사무소를 차려 새로운 주권국가수립을 추진하였다. 1919년 4월 10일 상해 金神父路에 모인 독립운동가들은 오직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열정을 불태웠다. 임시의정원(국회)을 조직하고 임시헌장(헌법)을 제정하여 국호를 결정했다. 대한제국 황제가 일제에게 넘겨준 주권을 ‘民’이 가져와야 한다는 중론을 모아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했다. 임시헌장 10개조 가운데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독립운동가들이 3·1독립선언을 계승하였음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국무회의에서 3월 1일을 국경절로 지정했다. 그것이 ‘독립선언기념일’이다.

2) 최근 미국에서 3.1운동 기사를 가장 먼저 타전했다고 알려진 뉴욕타임즈 보다 3일 먼저인 1919년 3월 10일 UP통신에서 최초로 타전되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UPI뉴스』, 2019년 3월 10일, 「3.1운동 UP통신이 미국에 최초 타전」).

3) 崔龍洙, 「周恩來와 조선 항일투사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1998, 406쪽.

1920년 3월 1일 오후 2시 상해 정안사로 올림픽극장에서 임시정부 요인들과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민단 주최로 제1회 3.1독립선언기념식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여운형의 사회로 시작된 기념식은 이화숙의 애국가 선창과 임정요인들의 축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날 도산 안창호는 기념사에서 “일본의 최대 문제는 이 날(3.1)을 무효에歸하게 함이오 우리의 최대 의무는 이날을 영원히 유효하게 함이라. 동포여 이날을 유효케 하려거든 그날을 기억하시오”⁴⁾라고 열변을 토했다. 도산의 말처럼 일제는 식민통치의 정당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립선언’을 없던 일로 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3·1운동에 대한 각국 언론보도를 주제로 다룬 연구는 상당부분 이루어졌고, 중국의 경우 김광수, 최용수, 김주용의 연구가 대표적이다.⁵⁾ 독립기념관에서는 2005년부터 8년간 약 6천롤의 중국 근대신문 M/F자료를 수집하였다.⁶⁾ 이 가운데 이미 『구망일보』와 상해 북경지역

4) 『독립신문』 1920년 3월 4일, 「上海의 3.1節」.

5) 金光洙, 「3·1獨立運動에 대한 中國言論界의 反應」, 『한국민족독립운동사의 제문제』, 하석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92 ; 崔龍水, 「朝鮮 3·1運動과 中國 5·4運動의 比較-中國史料를 中心으로 하여-」, 『國史館論叢』 49, 1994. 그리고 상해 출간 『申報』에 게재된 한국관련 기사를 정리한 저서도 공간되었다(석원화·심민화·패민강 엮음·김승일 옮김, 『중국언론, 申報에 그려진 한국근현대사』, 역사공간, 2004). 김주용, 「중국언론에 비친 3·1운동의 전개와 영향-장사 대공보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7, 2010.

6)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집한 중국 신문 M/F자료는 총 5,016롤이다. 이 가운데 상해지역 신문이 가장 많으며, 동북지역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2012년 한 해는 M/F자료를 수집하지 못했으며, 2013년에는 한국관련 중국 근대잡지 111롤을 수집하였다. 2014년에는 연구소 자체에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미처 수집하지 못한 신문 205롤을 추가 수집하는 것으로 사업을 일단 종료했다. 독립기념관 수집 자료 이외에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지 않다(김주용, 「독립기념관의 중국지역 독립운동 사료수집 현황과 과제」, 『역사와 담론』 69, 2014, 26쪽).

신문들이 자료 독립기념관 자료총서로 발간되었다.⁷⁾ 이 글에서는 그간 독립기념관 자료수집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5·4운동의 근원지이자 가장 강렬하게 진행되었던 북경지역에서 발간한 『國民公報』를 주요한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공보』는 1910년 7월 북경에서 중국 입헌파 단체인 국회청원동지회의 기관지로 창간되었다.⁸⁾ 국민공보에는 다양한 인사들의 글이 게재되었는데 梁啓超가 그 대표적 인사이다. 이 신문에는 3·1운동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하는 기사가 52건 게재되었다. 기사 가운데 3·1운동의 원인 중 하나였던 고종의 승하 내용뿐만 아니라 고종의 독살설, 3·1운동의 경과 및 일제가 저지른 학살 및 악행, 파리평화회의에 파견된 한국인들, 3·1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양상, 중국의 상황과 한국의 비교,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대응과 탄압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3·1운동 당시 국내

7) 독립기념관, 『중국신문 한국독립운동기사집』 1, 자료총서 24, 2008. 독립기념관, 『중국신문 한국독립운동기사집』 2, 2014. 이 글에서는 2014년 발간된 자료의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8) 청말기 입헌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새로운 시대의 조류에 부응하기 위한 신문들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正論』, 『國風報』, 『國民公報』가 대표적인 신문이었다. 『국민공보』는 1910년 7월에 북경에서 창간되었으며, 대표적인 인물로는 명예사장인 孫洪伊(1872-1936)을 들 수 있다. 그는 일찍이 동맹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신해혁명 이후 상해에서 민주당, 진보당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국민공보』의 실질적 사장에는 文實權이며, 주필은 徐佛芬이었다. 이 신문에는 양계초와 같은 입헌파 인사들의 글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김태국, 『중국 신문에 나타난 3·1운동』, 『중국신문한국독립운동기사집』 2, 2014, 41쪽; 方漢奇·張之華 主編, 『中國新聞事業簡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133~134쪽). 그리고 1919년 10월 24일에 간행법 위반으로 정간되었다(全國圖書館文獻築微復除中心, 『中文報紙縮微品目錄(1), (2)』, 中國書籍出版社, 1993, 16쪽). 다만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국민공보』가 직접 특파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모아 기사화 했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언으로 전해지는 것을 받아 기사로 게재한 것도 없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 언론의 3.1운동 보도 패턴을 사례 분석의 준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의 언론이라고는 조선총독부의 기관지인 『매일신보』⁹⁾ 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서술이 가능했던 중국의 신문들에 비친 3·1운동의 모습은 한국 독립운동이 지닌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어떠한 위상을 가지는 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¹⁰⁾ 역사를 활용한 미래 설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薄弱한 역사적 사실을 침소봉대하는 작업이 아니라 잊혀져 있던 것을 복원하는 것이야말로 동북아에서 각국이 주장하고 있는 평화의 강도를 측정하는 데 준거가 되지 않을까 한다.

II. 3·1운동의 원인 : 일제의 폭정 고발

북경 『국민공보』에서 3·1운동 기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9년 3월 6일자 2면 歲評란의 「免韓人」이다. 이 기사에서는 한인들이 조국을 잃은 것을 통탄하여 조국 광복을 위하여 일어난지도 14년이 되었다고 하면서

9) 『매일신보』에서는 3.1운동 이후 그 대응양태로 각 지역 ‘소요사건’ 등과 같은 고정란을 편성하여 친일논조를 통해 3.1운동을 각색하였으며, 특히 사리분별하지 못한 국내의 종교관계자 및 사려가 천박한 학생들이 비밀리에 연합하여 일으킨 不祥事로 3.1운동을 규정하였다(황민호,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친일논리 - ‘기획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2017, 172~175쪽). 무엇보다도 3.1운동 보도는 친일논조로 흘렀으며, 3.1운동의 실체보다는 왜곡된 역사상을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고 분석하였다.

10)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즈음하여 각종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으며, 학회지에서는 이를 특집호로 출간하여 그 의미를 되새기고자 했다. 다만 3.1운동에 대한 국제적인 반향을 주제로 한 학술발표회도 거행되었지만 중국인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특히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야심차게 펴낸 도록에도 세계 각국 신문은 수록되었지만 중국 신문은 수록되지 않았다(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2019).

세계민족자결주의에 순응하여 조국 독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기하였다고 강조했다.¹¹⁾ 이 신문에서는 이미 1919년 2월 11일자 기사에서도 한국 독립운동이 민족자결주의와 연결되어 있다고 언급했다.¹²⁾ 뿐만 아니라 이를 뒤에는 같은 제목으로 한국¹³⁾의 독립문제와 아울러 일본 동경에서의 2·8 독립선언의 상황을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이에 7일 오후 조선청년회관(기독교청년회관)어제(7일) 오후 2시 한국유학생들이 神田區 西小川町 2丁目 4번지에 있는 동경기독교청년회관에서 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장은 윤창석이다. 그들은 미국에 있는 한국인 동포들이 미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한국 독립문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특별히 이번 대회를 개최하고 이에 상응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온한 내용으로 연설을 강행하였다. 이런 소식을 탐지한 西神田 경찰서에서는 즉시 20여 명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산을 명령하였다. 일시에 큰 소란이 일어났다. 16시에 경찰청에서 많은 監察을 파견하여 두 대의 자동차에 나누어 타고 현장에 투입되어 소란을 제압하였다. 회장 윤창석, 그리고 徐椿·崔謹愚 등 10여 명을 경찰청으로 압송하였다.¹⁴⁾

2·8 독립선언은 3·1운동의 전주곡일 뿐만 아니라 일제의 심장에서 전개한 또다른 3·1운동이었다. 1919년 2월 8일 도쿄 한국유학생들의 독

11) 『국민공보』 1919년 3월 6일자, 「免韓人」.

12) 『국민공보』 1919년 2월 11일자, 「高麗人之獨立運動」.

13)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한국 역사학계는 일제강점기로 용어를 통일해서 쓰고 있다. 그러나 식민지 조선 또는 항일투쟁기 또한 학자마다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글에서 ‘한국’ 또는 ‘한인’은 『국민공보』의 보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려 또는 한국, 한인을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14) 『국민공보』 1919년 2월 13일자, 「高麗人之獨立運動」.

립 선언은 재미동포들의 동향을 탐지한데서 비롯되었다. 세계 제1차대전 종전 후 처리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제국주의 열강이 모여 1919년 1월 18일 파리강화회의를 개최하였고 이 때 윌슨이 선언한 민족자결주의 원칙을 동경유학생들이 접하게 되었다고 보도했다.¹⁵⁾ 북경 『국민공보』에는 3.1운동 관련 기사가 2·8독립선언과 함께 게재되어 있다. 1919년 2월 11일 기사 「고려인의 독립운동」에는 다른 신문, 예를 들면 『民國日報』에는 보이지 않는 2·8독립선언 전개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¹⁶⁾ 특히 2월 7일 오후 도쿄 조선청년회관(YMCA)에서 유학생 대회를 개최하여 안건으로 조국 독립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개최하였다는 사실이 2월 13일에 기사로 게재되었다. 다만 2월 13일 보도된 기사 내용은 1919년 1월 6일 일본유학생들의 웅변대회를 말하는 것이며, 2월 7일에는 유학생대표로 11명의 임시대책위원이 발표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7) 기사의 정확성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그만큼 2·8 독립선언이 일본 경찰의 엄중한 감시를 피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이다.¹⁸⁾

3.1운동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고종독살설이다. 장사 『대공보』에서는 고종의 독살설을 제기하였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기사도 게재하였던 반면¹⁹⁾ 북경 『국민공보』는 고종에 대한 이력을 자세하게 소개하였지만 독살설에 대해서는 커피와 우유를 마시고 복통을 일으켜

15) 김주용, 「중국언론에 비친 3·1운동의 전개와 영향-장사 대공보를 중심으로-」, 90쪽.

16) 『국민공보』, 1919년 2월 11일자, 「高麗人之獨立運動」, 3월 8일자에도 2·8 독립선언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였다. 2월 11일자에 보이지 않는 최팔용, 김철수, 김도연, 서춘, 최근우, 김종원, 백관수 등의 이름이 보인다.

17) 이윤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74쪽.

18) 강영심·김도훈·정혜경,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II-중국·미주·일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323~325쪽.

19) 『대공보』 1919년 2월 21일자 「可驚可駭韓王暴殂消息」.

사망했다고만 썼다.²⁰⁾ 고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불행한 일이라고만 여겼다.²¹⁾

한편 『국민공보』는 3·1운동을 보도하면서 그 원인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폭정을 들고 있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傳道人을 적대시 하고 교인을 포함한 寺內正毅를 암살하려 했다면서 대대적인 검거 선봉을 일으켰다.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학생이라면 함께 포박하여 일망타진하려 했다. 그들에게 여러 가지 악형을 가했다. 심지어 불로 남자의 陽物을 지져버렸다. 한인들을 핍박하여 종교를 포기하도록 하는 야만적인 술책이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총독부의 허가서를 받아야 했다. 교회 설립도 반드시 보고와 승인을 받은 후에 가능했다. 이러한 일들은 너무 많아 일일이 기록할 수 없다.²²⁾

뿐만 아니라 일본제국주의가 강제 병합 이후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음을 고발하였다. 특히 한인 자녀들에 대한 교육권을 제한하여 ‘민을 우롱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²³⁾ 일본의 학정과 폭정은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를 결코 꺾어놓지 못했다. 그 열망이 고스란히 도쿄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으로 모아졌다고 했다. 그래서 ‘망국인들의 분노’가 전 조선으로 확대하였다고 표현하였다.²⁴⁾ 경

20) 『국민공보』 1919년 3월 17일자 「前韓皇暴崩」.

21) 고종 독살설에 대한 전문 연구는 이태진, 「고종황제의 독살과 일본정부 수뇌부」, 『역사학보』 204, 2009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도 윤치호일기에 전하는 내용으로 고종의 독살실체를 추적하였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說’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22) 『국민공보』 1919년 3월 7일자 「日本吞併韓國後之惡政」.

23) 『국민공보』 1919년 3월 8일자 「亡國人興感夢」.

24) 『국민공보』 1919년 3월 29일자 「高麗亂事之擴大」.

제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의 폐해나 산림령, 식량 약탈 상황 또한 그대로 묘사하였다. 잠시 보겠다.

1년에 쌀을 1,200만 석을 거둘 수 있으나, 한국 민족과 아무 상관없이 모두 일본 국유로 넘어간다. 또한 森林法令에 의하여 국유로 넘겨진 산에서는 한국인이 재목이나 땔나무를 할 수 없다. 현재 한국에 1년 동안 거둘 수 있는 쌀은 1,200만 석이다. 한국민의 식량으로 필요한 것이 1,100만 석이다. 그 가운데 500만 석을 일본이 약탈하여 간다. 일본이 천방백계로 한국 민족의 이익을 침탈하는 것에 대하여 굳이 따질 필요조차 없다. 상기한 한 가지 방법만으로도 한국 민족을 충분히 사지에 몰아넣을 수 있다. 매년 병으로 죽고, 굶어 죽는 자가 10만 명에 달한다. 1년에 서북간도와 시베리아에 유랑하는 자가 30만 명에 달한다. 현재 서북간도와 시베리아, 그리고 중국 각지에 거주하면서 죽음의 문턱에서 신음하는 한국 민족이 모두 200만 명이라 한다. 이로써 한국 민족이 일본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유리한가 유리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도리라 하겠다.²⁵⁾

한인들이 일제 식민통치의 결과 토지에서 유리되어 타국으로 전전하는 모습을 생생히 묘사하였고 비록 통계는 정확하지 않지만 3·1운동의 내적 원인을 비교적 명확하게 분석, 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예외도 있다. 3월 27일자 ‘조선폭동의 원인’을 조선총독부가 한국기독교와 미국 선교사의 선동으로 보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²⁶⁾ 기사 제목을 ‘조선폭동의 원인’으로 적시한 것은 『매일신보』에 보이는 3.1운동 기사처럼 조선총독부에서 악의적인 3.1운동 왜곡 기사를 전파한 결과로 보

25) 『국민공보』 1919년 4월 13일자 「亡國子遺之亡國淚」.

26) 국민공보 1919년 3월 27일 朝鮮暴動之原因.

여 진다.²⁷⁾

III. 3·1운동의 전개과정 : 독립선언의 정당성

3·1운동은 서울에서 시작되어 빠르게 지방으로 확산되었으며, 인천·평양·원산 등에서 전국에서 치열하게 시위가 전개되었다.²⁸⁾ 조선총독부에서는 2월 28일과 3월 1일 새벽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도 그날 오후에 독립선언식을 개최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²⁹⁾ 하지만 3·1운동이 전개되자 조선총독 하세가와 도시미치는 긴급회의를 열어 무력사용을 결정했다. 이러한 3·1운동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국민공보』에는 3·1독립선언과 안중근의 동생 안정근이 중국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게재하였다.

우리 한국 전국 각 府의 인민들은 동시에 3월 1일 오후 2시를 기해 정식으로 가장 문명하고 가장 정중한 거동으로 독립을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독립 선언을 예정한 시간에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각 우방 영사관과 일본 각 기관에 일제히 선언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거동의 광명정대함을 나타냈습니다. 아쉽게도 일본인들은 우리를 추호도 양해하려 하지 않고 압력을 남용하였습니다. 어제는 일본이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또

27) 황민호,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친일논리 - '기획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 200~201쪽.

28)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3.1운동, 1988, 266~2·8쪽.

29) 김주용, 『중국언론에 비친 3·1운동의 전개와 영향-장사 대공보를 중심으로-』, 93쪽.

한 어제는 우리가 아쉽게도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피와 몸을 하느님께 바쳐 우리나라를 되찾는 보수로 삼아야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아, 이번 3~4일간에 몸을 바쳐 순국한 이가 얼마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알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히 맹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다른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한국을 민족이 자결하는 세상으로 만들려는 굳은 의지 때문이라 하겠습니다.(중략) 1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가 구금된 이가 10,0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할 지 예상하기 힘듭니다. 교수형에 처할 지, 총살할 지 우리 모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인들이 우리의 眞意를 날조하여 엄한 형벌로서 핍박하여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자백서를 받아 낼까 염려될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염려한 사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귀 신문사 주필 여러분은 절대 미혹되지시 말기를 기원합니다. 멀리서라도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2천만 동포는 진정으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한국 건국 4252년 3월 4일 안정근 삼가 올림.³⁰⁾

기사에서는 한국인이 처한 상황을 중국에 호소하면서 일제의 식민통치와 3·1운동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일제의 야만성을 폭로하였다.³¹⁾ 그

30) 『국민공보』, 1919년 4월 1일자, 「朝鮮獨立之宣言書」. 안정근이 연해주에서의 생활을 접고 상해로 이동한 시기는 1919년 가을 무렵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상하이로 오게 된 주요 배경에는 안창호와의 인연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이재호, 「안창호와 안정근·공근 형제」, 도산학연구, 2004, 117쪽). 다만 이 글이 어떻게 안정근이 작성했으며, 중국인들에게 부탁의 글을 게재했는지는 좀더 규명해야 할 것이다. 1919년 10월 15일 상해 임시정부에서 ‘친주교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도 안정근이 작성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정운현, 정창현, 『안중근家 사람들』, 역사인, 2017, 174쪽)도 있지만 오히려 지명도가 있는 안중근의 동생임을 강조하여 누군가 차명으로 작성했을 개연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 기미독립선언서(공약삼장 포함) 전체를 게재하였다(『국민공보』, 1919년 4월 3일,

러면서 중국인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공보』에는 중국에 알려진 3·1운동의 실상과 중국에 와 있던 유럽인들이 폭로한 3·1운동 기사도 게재하였다.³²⁾ 일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허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논조였다. 나아가 독립선언의 정당성과 독립선언서의 내용을 보도하기도 하였다.³³⁾

국내 3.1운동 소식과 함께 중국 현지와 관련된 색다른 소식도 전해졌다. 북경에 파견된 河蘭史³⁴⁾의 죽음 또한 3·1운동과 연결하여 보도하기도 했다. 기사에서는 이국 땅에서 숨을 거둔 한 여인의 애닦은 죽음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최근 북경에 파견된 고려 애국 부인 韓娜莎(河蘭史, 본명 김난사 필자)는 조국의 독립운동이 실패하고 남편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자 울분하여 선혈을 몇 되 각혈하고 11일 오전 7시 婦嬰의원에서 한 많은 세상을 하직하였다.(중략) 1906년 웨슬리안 대학 문과에 입학하여 문학사 학위를 받고 귀국하였다. 1916년 감리교가 미국에서 대회를 개최하자 한국 대표로서 참석하였다. 이번 북경에 도착하여 六國飯店에 머물렀다가 3일 후에는 중국인 친구의 집으로 옮겨 2주간 머물렀다. 그녀는 동창생 한명과 함께 비밀리에 파리에 가서 평화회의에 한국의 사정을 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때마침 독립운동이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도 불상사를 당하지 않았을까 근심하다가

「朝鮮獨立運動之見聞」.

32) 『국민공보』, 1919년 4월 3일, 「朝鮮獨立運動之見聞」.

33) 『국민공보』, 1919년 4월 1일, 「朝鮮獨立宣言書」.

34) 하란사의 본명은 김난사이다. 그의 남편 하상기와 결혼 후 미국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하란사로 불렸다. 하란사에 대한 연구로는 김성은, 「신여성 하란사의 해외유학과 사회활동」, 『사총』 77, 2012 ; 손정도와 하란사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김창수·김승일, 『해석 손정도의 생애와 사상 연구』, 넥세스, 1999, 135~142쪽 참조.

각혈하였다. 얼마 전에는 친구의 집에 가서 일본인의 잔인함을 크게 꾸짖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마음속 상처를 입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에서 한 많은 세상을 하직했다고 한다. 중국인 친구는 이미 전보로 한국에 있는 그녀의 가족에게 알렸다고 한다. 만약 며칠 사이에 답전을 받지 못하면 북경에서 자리를 마련하여 안장할 예정이라 한다. 오호, 망국인 유해여,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노라.³⁵⁾

하란사에 대한 기사는 한국독립운동사에서도 중요한 대목이다. 의친왕 이강의 해외 망명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1875년 평양에서 태어난 하란사는 일본에서 유학 후 상동교회 영어교사로도 일했으며, 특히 嚴妃와의 인연으로 의친왕 이강과 독립운동을 논의하게 되는 처지가 되었다. 그가 북경으로 망명하여 새로운 독립운동을 도모하려 했지만 뜻하지 않은 사고로 북경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하란사의 죽음에 대해서는 독살설도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³⁶⁾

한편 『국민공보』에서는 1919년 4월 6일자부터 본격적으로 3·1운동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도하였다.³⁷⁾ 이어서 3일 뒤 「고려독립운동의 경과」라는 글은 서울 및 개성지방의 동영상 같은 3·1운동의 실상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35) 『국민공보』, 1919년 4월 3일자, 「高麗婦人憂憤亡身」. 하란사 여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의 순국 다음해에 상해에서 추도식을 거행할 정도로 여성 애국자로서 칭송을 받고 있었다(『獨立新聞』1920년 1월 22일자, 「三愛國女史의 追悼會」).

36) 김창수·김승일, 『해석 손정도의 생애와 사상 연구』, 넥세스, 1999, 135~141쪽. 고혜령은 하란사의 죽음에 대해서 남편 하상기의 제적등본에 적시한 사망원인이 폐렴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고혜령, 「김난사(하란사)의 독립운동과 하상기」, 『3.1운동 100년 그리고 세계평화』, 3.1운동 100주년기념국제학술심포지엄 발표문, 2019, 65쪽).

37) 『국민공보』 1919년 4월 6일자, 「高麗獨立之經過」.

가) 서울 : 3월 1일 오후 학생 7,000~8,000명과 군중들이 서울 종로에 모여 몇 개 대오로 나누어졌다. 제1대는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대한문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들은 다시 대한문 앞 광장에 모여 독립을 역설하는 강연회를 가졌다. 다른 1대는 광화문 앞에서 독립만세를 높이 외치고 다시 남대문 정거장에서 만세를 앞다투어 불렀다. 이어서 프랑스 영사관 앞까지 행진하였다. 또 다른 1대는 창덕궁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다른 1대는 조선 보병대 병영으로 진입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대한문 시위대에서 갈라져 나온 1대는 미국 총영사관 앞에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다른 단체 약 3,000명은 총독부로 가려고 했지만 日本町에서 저지당하면서 잠시 소강상태를 보였다. 군중들 가운데 주모자로 지목된 160명이 체포되었다. 이날 오후 8시경에 마포 전차 종점 부근에 약 3,000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그리고 11시경에 기독교 부속 연희전문학교부근에 학생 약 500명이 집합하였다. 2일 오후 종로 사거리에 2,000여 명이 모여 만세를 높이 외치며 종로경찰서 문 앞을 지나다가 경찰이 저지에 나서면서 큰 충돌이 있었다. 주모자로 지목된 20명이 체포되었다. 여기에 모인 시위대는 대부분 학생 혹은 각 교단의 교인들이었다.

나) 개성 : 기독교 부속 豪斯敦여자학교 학생 약 200명이 3일 오후 2시경에 3열 혹은 5열로 대오를 지어 찬송가를 부르며 만세를 높이 외쳤다. 당지 경찰서에서 나와 저지하려고 하자 약 3,000명 군중들이 사방에서 삼시간에 모여 들었다. 시위 대오를 저지하려고 하였지만 시위대는 말을 듣지 않았다. 학교 교장이 달려와서 중재하면서 큰 충돌을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다. 오후 5시 30분, 15~16세 이하 소년대가 선두에 서고 뒤에 300~400명 군중이 따라 붙으면서 독립만세를 불렀다. 해가 저문 후 약 2,000명 이상 군중들이 모여 조선독립만세를 높이 불

렸다. 일본 경찰과 헌병들이 총검으로 저지하여 사상자가 적지 않았다. 개성 기독교 부속 韓英書院 학생 약 500명은 3월 4일 아침 학교 운동장에 모여 만세를 목청껏 외치고 독립 노래를 부르며 나팔 부는 활동을 전개하려는 찰나에 일본 경찰이 나타나 힘으로 제지하였다. 이때 군중 1,500명이 각자 태극기를 들고 학생들 모임에 합류하려고 하였다. 일본 경찰들은 총검으로 학생들을 위협하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³⁸⁾

서울과 개성에 이어 황해도 중화군에서 4,000여 명이 모여 시위운동을 전개하였으며, 부상자는 200여명에 달했다고 전한다.³⁹⁾ 또한 평남 강서군에서도 약 3,000여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에 동참하였으며, 평북 선천군에서도 남녀 학생 1,000여 명이 모인 상황을 보도하였다. 또한 3·1운동이 시작된 지 10여일 지난 서울을 상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⁴⁰⁾

오늘로 서울 상점들이 문을 닫은 지 13일째라 한다. 여러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수업을 하는 학교가 5곳 밖에 없다고 한다. 관립 의학학교 학생이 모두 199명인데 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6명뿐이다. 공립 실업학교 학생이 181명인데 수업에 들어온 학생이 1명뿐이다. 索明女學校의 학생이 231명인데 수업에 참가한 학생이 193명이다. 景明女學校의 학생이 179명인데 수업에 들어온 학생이 111명이다. 공립 고등여학교의 학생은 모두 203명인데 수업에 참가한

38) 『국민공보』 1919년 4월 9일자, 「高麗獨立之經過」.

39) 『국민공보』 1919년 4월 10일자, 「高麗獨立之經過」.

40) 박찬승은 3.1운동 당시 서울의 시위양태를 새롭게 조명하여, 동선 등을 비정하였다. 다만 이 글에서는 3월 중순 서울에서의 독립운동 시위상황을 분석하는 데는 미흡하였다(박찬승, 「서울 3.1운동의 재구성」,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서울 역사박물관, 2019, 242~257쪽).

학생이 26명뿐이다.⁴¹⁾

한국인들의 지속적인 만세시위운동에 대해 일제는 가혹한 방법으로 탄압의 강도를 높였다. 당시 행해진 일제의 탄압 가운데 『국민공보』는 각 지역의 가옥을 파괴하거나 운동의 거점이었던 교회를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⁴²⁾ 특히 인체에 가해지는 수치심과 모욕감은 극에 달했다고 표현했다.

가) 한국 학생을 가혹하게 학대한 소식이 입수되었다고 한다. 검거된 학생들은 한국 모 도시에서 나무로 된 십자가에 묶인 채로 참혹하게 채찍과 몽둥이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고문을 당하고 석방된 학생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의 주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한 고문을 너희들도 똑같이 받을 기회를 가진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무릇 이런 혹형을 당하고 석방된 사람은 하나같이 온몸이 성한 데가 없고 상처가 심하여 도저히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상기 도시 부근에서 일본인에게 소각된 교회가 100개를 넘어선다. 다른 곳의 교회도 기구·창문·성경 등의 물건들이 파손되었거나 소각되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이미 한반도의 각 지역에 그리고 산간벽지까지 파급되었다. 파견을 받아 소식이나 훈령을 다른 곳에 전하는 사람들은 기회를 보아가며 침착하게 움직이고 있다. 독립운동의 수령이나 선구자들은 대부분이 부녀자들이다. 이런 일은 대부분 이들이 맡아 하고 있다.⁴³⁾

나) 한국에 거주하는 어느 선교사가 친구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인이 당한

41) 『국민공보』 1919년 4월 12일자, 「高麗獨立風潮未平」.

42) 『국민공보』 1919년 5월 30일자, 「韓京獨立之慘狀」.

43) 『국민공보』 1919년 4월 20일자, 「日本壓迫韓人之手段」.

참상을 서술했는데 도무지 끝까지 읽어 내려 갈 수 없었다. 편지에서 이야기하기를 최근 1일 이래로 서울과 기타 지역에서 한인의 혁명 행동은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행동이 조직적이고 용감하기로 우리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일본인의 한인에 대한 잔악한 압박 행동은 인도주의가 눈감아 줄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 넘어서었다. 이것 역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런 광경을 친히 목격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정도이다. 한인의 독립운동은 지극히 문명하고 평화롭기 그지없다. 입으로 목청껏 독립만세를 외쳤을 뿐이다. 그런데 일본 군관과 사병들은 노인이나 어린이들을 가리지 않고 총살하거나 잔인하게 매질했다.⁴⁴⁾

다) 한인 여학생이 감옥에서 모욕을 당하는 참상을 이야기하면 일본인의 야만스러움이 아프리카주의 흑인을 능가하고 있다. 검거된 여자는 모두 옷을 벗기위 알몸으로 일본 관리의 심문을 받는다. 일본 군인들은 여학생을 에워싸고 아무 거리낌 없이 모욕한다. 여학생들은 판결을 받은 후 감옥에서 일본인에게 간음과 학대를 당하는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다. 부인이 옷을 입지 않고 알몸으로 사람을 대하면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것은 세상에서 아마도 일본 부인들 뿐 일 것이다. 구미(歐美)와 중국에서는 모두 부인의 정조를 소중하게 여긴다. 하물며 한국의 여학생은 군대가 되어 혁명 행동을 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입으로 독립만세만을 불렀을 뿐이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문명하며 질서가 있었다. 그들은 다만 하늘이 내린 자유와 독립을 요구하였을 뿐이다. 일본인 가운데 사람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오히려 그녀들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지 이렇게 잔인하게 대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

44) 『국민공보』 1919년 5월 4일일자, 「日本對待韓人之一斑」.

같은 외국인들이 옆에서 보기에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한국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불법 행동이 없었는데 일본 군인들의 모욕과 간음을 당하였다.⁴⁵⁾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일제가 한국인들에게 가한 반인륜적, 비인간적 행위는 상상을 넘어섬을 알 수 있다. 한인 여학생들이 감옥에서 모욕을 당하는 참상은 아프리카의 흑인노예를 능가한다고 묘사하고 있다.⁴⁶⁾ 3·1운동의 참혹상에 대하여 한국의 여학생이 미국 월슨대통령과 파리강화회의의 관련 인사들에게 보내려고 한 편지를 『字林報』⁴⁷⁾의 북경 주재원이 받았는데 이를 『국민공보』에서 다시 게재하였다.

정의와 인권 신장에 앞장서고 있는 파리평화회의의 참석자 여러분! 하느님 앞에서 한국의 섬약한 여자들은 여러분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아녀자로 불행하게 당한 수치와 모욕을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원조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을 향해 통탄할 뿐이었습니다. (밀줄 필자) 지금 각지의 인민들이 모두 자유를 요구한다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한인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일어나서 우리가 받고 있는 압제에 대하여 알리고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公理가 신장되지 않고 人道가 없다

45) 『국민공보』 1919년 5월 19일자, 「日人對韓之四字評」.

46) 최근 서대문형무소기념관에서는 3.1운동 당시 투옥되었던 애국지사들을 정리하여 자료집을 편찬했다(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자료집』 1·2·3, 2019).

47) 『字林報』는 『字林西報』(North China Daily News)라고도 하며, 전신은 『北華捷報』(North China Herald)였다. 일찍이 중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자 신문 가운데 하나였으며, 1850년 상해에서 발간되었다. 1850년 상해에서 발간될 당시 『北華捷報』는 주간이었으며 1864년 『자림서보』로 개명하여 발간되었다(方漢奇·張之華 主編, 『中國新聞事業簡史』, 55~56쪽).

고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도리어 구타를 당하고, 체포되어 투옥되고, 총검에 찔려 부상을 입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고, 가옥이 파괴당하고, 주말에는 예배를 보는 것을 금지 당했습니다. 검문을 통해 기독교인으로 확인되면 곤봉과 주먹질을 당하여 여러 사람이 피살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오로지 두 손 들어 하늘을 향해 나라를 위해 자유와 공리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가엽게 여기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서 일본의 이러한 흑형과 불공정한 대우를 막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이 호소문이 평화회의에 전달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 받아 보고 우리들의 고통을 애통하게 여겨 평화회의에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이가 어리고 유치하여 틀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생각됩니다.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권력도 없고 어디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의 노력이 하느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끝까지 일본의 협박에 저항하지 못하고 핏박에 못 이겨 '한일합병'을 청구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된 것은 절대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일본의 간교한 계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윌슨님이여, 우리들은 당신을 자애로운 아버지처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독립선언을 귀담아 들어서서 세계 각국에 알려 주십시오 간곡하게 기도드립니다. 1919년 3월 10일 한국 여학생 삼가 올립니다.⁴⁸⁾

한편 일제는 3·1운동의 열기를 꺾기 위하여 병력을 증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⁴⁹⁾ 다른 한편으로는 파리평화회의에서 동화정책을 증명한다는 미명하에 이완용과 같은 친일파를 내세웠다고 보도했다.⁵⁰⁾ 이 기사는,

48) 『국민공보』 1919년 4월 11일자, 「高麗女生呼籲書」.

49) 『국민공보』 1919년 5월 1일자, 「日本派兵赴韓之聲辯」.

50) 『국민공보』 1919년 4월 12일자 「高麗事日人將施手段」. 1919년 4월 2일 백작 이완

한국인들은 이미 동화되었다는 보고서를 올릴 목적으로 파리강화회의에 간다고 한다는 일본의 간교함을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한국인들의 독립만세 시위에 대해 일제의 폭합적 진압과 구금 및 고문이 이어졌다.⁵¹⁾ 그 대표적인 것이 제암리 사건에 대한 보도였다.⁵²⁾ 이 기사에서는 비록 간략하게 제암리 상황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참혹한 광경은 목불인견이라고 했다. 다른 신문인 장사 『대공보』에 실린 제암리 참상은 다음과 같다.

며칠 전 서양사람 모 박사(스코필드:필자)는 수원군 제암리에서 일본헌병에게 교회당이 불타버렸다는 것을 보고했다. 70여 살의 노부부는 슬하에 세 명의 자식과 세 명의 손자가 있었다. 어느 하루는 일본 경찰이 돌진해 와서 송곳 끝으로 무자비하게 두 노인의 얼굴을 찔렀다. 고통은 참기 힘들었으며 일본은 또 그 자손들을 위협했다. 삼노끈으로 묶고, 몇 리를 몰고 갔다. 두 노인도 그 뒤를 따라갔고 산 아래에 이르게 되었다. 두 노인이 일본 헌병에게 묻기를: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 헌병이 대답하기를: “이 곳에서 총살당했다.” 그 늙은 두 부모는 그 말을 듣고서는 대성통곡하며 무릎을 꿇고 일본헌병에게 애걸했다. 그들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 노인을 위협해서 물러가게 했다. 두 노인은 끝까지 물러가지 않았고 일본 헌병은 총

용 명의로 경고문을 인쇄 발행하였다. “오호라 조선 동포여, 일반의 말 중에 죽음 가운데 생을 구한다는 말은 있다하나 지금에 조선인민은 사는 중에 죽음을 구하려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얼핏 알아듣기 쉽도록 한마디를 하노니 제군은 잠깐 정신을 수습하고 상세히 음미하기를 바라노라. 조선독립이라는 선동이 허황된 말이고 망동이라 하는 데 대하여는 각 유지와 인사들이 천언 만언으로 갖추지 아니함이 없는데도(하략)” 이러한 경고문은 만세의 정당성을 훼손하는데 사용되었다(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2019, 177쪽).

51) 이윤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10쪽.

52) 『국민공보』 1919년 5월 30일자, 「韓京獨立之慘狀」.

을 들고 칼로 아들과 손자의 배, 얼굴을 찢러 죽게 했다. 두 노인은 그와 같은 참상을 보고 같이 죽여 달라며 울며 통곡했다.⁵³⁾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한 전모이며, 스코필드 박사가 쓴 내용을 신문으로 기사화 한 것이었다. 제암리 학살사건은 일제가 3·1운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실례이다.⁵⁴⁾ 제암리 학살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중국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기사화한 시점은 사건 발생 한달 전후였다.⁵⁵⁾ 제암리 사건과 같은 학살 사건에 대한 살상에

53) 『대공보』, 1919년 7월 5일자, 「某西人之朝鮮慘象談 我國人之殷鑒」.

54) 김선진,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144~147쪽.

55) 중국의 다른 신문에 보이는 제암리 사건에 대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1919년 6월 1일 『時事新報』에는 제암리 학살에 대한 자세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수원에서 남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기독교를 믿는 마을이 있었다. 한인 몇 명이 일본군대에 의하여 교회당에 갇혔다. 일본군은 4면에서 교회당에 불을 질러 한인을 그대로 불태워 죽였다. 나는 이런 소문을 듣고 과연 이러한 일이 있을까 도저히 믿지 못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잔인무도한 일이 또 있으랴. 나는 이 소문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튿날 기차를 타고 수원으로 갔다. 군경들의 저지를 받을까 염려하여 길을 에둘렀다. 산길을 택하여 피해를 입은 마을로 향했다. 군경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부근에 거의 다다라 한인들을 보고 이런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한인들은 대부분 머뭇거리며 대답을 피하였다.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마을에 들어서니 많은 일본군 장교들이 그곳에서 살펴보고 있었다. 나는 앞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을 건넸다. 다행히 그들의 허락을 받고 계속 들어가 볼 수 있었다. 마을은 이상하게 조용했다. 불에 탄 민간인 가옥과 교회당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80여 채였다. 여기 저기에 한인들이 땅에 주저앉아 있었다. 이전에는 사람이 북적하고 변화하던 마을이 하루 사이에 잿더미로 변했다. 어제는 부모 자식 한집에서 오순도순 살았는데 지금은 과부와 고아들이 산자라 풀 속에서 기아와 추위에 허덕이게 되었다.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얼마 지나니 앉아 일본군 장교들이 이곳을 떠났다. 그제야 한인들은 비로소 나한테 당한 일을 알려주었다. 4월 15일 즉 화요일 오후 일본군 병사 몇 명이 마을에 나타나서 기독교를 믿는 모든 남자들은 교회당에 모이라 하였다. 한인 23명이 교회당에 들어갔다 앉아서 오랫동안 기다려도 나와서 무슨 영문인지 말하는 일본군이 없었다. 모두들 수상하게

대한 세계적인 공분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되며 일본제국주의도 한인에게 잔인한 폭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했다.⁵⁶⁾

IV. 3 · 1운동의 영향 및 의의

3 · 1운동의 전개양상을 보면서 일제는 무관통치에 대한 고민에 빠졌다고 『국민공보』는 보도하였다. 아울러 파리강화회의에 한국인 대표를 파견하는 상황도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1919년 4월 20일자 기사를 보면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파견한 대표가 이미 파리에 도착하여 영국 · 프랑스 · 미국 등 각국 대표와 접촉하면서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하여 소원을 伸訴하려고 청원 중이라 한다. 각국 대표들은 대부분 동정을 표시했다고 한다. 그 가운데서 미국은 중대한 원조를 주겠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 대표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청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본사의 특별 비밀 소식에 따르면 미국에 있는 韓僑들은 프린스턴대학 철학박사 이승만을 대표로 파리에 파견하여 청원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미 2월에 미국을 출발하여 프랑스로 향한 이 씨는 미국에 거주한 지 10여 년이 되었다. 그는 윌슨 대통령과의 우의도 매우 두텁다.

생각했다. 얼마지나지 않아 일본군 병사들이 교회당을 에워쌌다. 그들은 창문으로 교인들을 향하여 사격하였다. 안에 있던 한인은 맞아 죽거나 부상당했다. 그리고 나서 일본군 병사들은 교회당에 불을 질렀다. 문을 박차고 나오는 한인을 일본군들은 총검으로 찔렀다. 부인들은 남편이 교회당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 일본군 병사들은 민간인 가족도 불에 태워버리고 갔다. 이것이 이날 일본군이 시골 마을을 방화한 대체적인 사건 경위라 한다.”

56) 『국민공보』 1919년 4월 22일자, 「公憤」.

미국의 지식인들은 대부분 그의 인격을 지극히 존중한다. 이번 걸음에서 그는 2천만 동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⁵⁷⁾

1919년 5월 13일과 14일에는 이를 연속으로 고려인의 국권회복 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전달하는 기사가 게재되었다.⁵⁸⁾ 한국의 유구한 역사가 일제의 침탈로 유린당하였으며, 파리강화회의에서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6월 20일자에는 파리통신을 인용하면서 김규식 일행의 활동을 자세하게 보도하였다. 기사는 다음과 같다.

한국은 일본에 의하여 ‘합병’된 후로 한국의 지사들은 각 지역에서 단체를 설립하여 광복에 매진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강력한 폭압 아래에서는 언론기관을 설립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들이 받고 있던 참혹한 고통에 대하여 대외에 알린 길이 없었다. 도탄 속에서 신음하던 2천만 한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 난지 오래되었다. 그러나 한인들의 독립을 향한 뜻은 종래로 굽힌 적이 없었다. 근래에 들어 한국 지사들은 외국에서 유력한 단체를 설립하였다. (중략) 파리평화회의가 개최되자 국제적인 불평을 해소하고 세계의 영구적인 평화를 건설하려는 시기에 진입하였다. 한국의 지사들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하였다. 각 지역에서 하나같이 일어서서 회의를 개최하고 토론한 결과 대체로 두 가지 행동을 실천하기로 하였다. 하나는 대표를 평화회의에 파견하여 한국 독립을 청원한다. 다른 하나는 사람을 국내로 파견하여 각 지역에서 인민에게 연락하여 일본에 반항하는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유럽에 파견된 대표들을 성원하는 활동을 전개한다. 평화회의에 파견된 대표는 모두 4명이다. 미국에서 출발하는 이는 이승만·민찬호·정한경이다. 중국에서 출

57) 『국민공보』 1919년 4월 20일자, 「高麗赴法代表請願獨立」.

58) 『국민공보』 1919년 5월 13일자 「高麗人復國請願致巴黎和會書」.

발하는 이는 김규식이다.(중략) 김규식은 배에서 이들과 약소 민족의 문제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벌였다. 한국에 대하여 동정을 표시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한 달여 동안 함께 배를 타고 파리에 도착하였다. 미국에서 오기로 한 3명 대표는 도착하지 않았다. 알아보니 비자 문제 때문에 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망국한 사람에게 세상은 이렇게 힘든 것이었다. 김규식은 파리에 머물면서 각국 언론 매체와 프랑스 재야의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접촉하였다.(중략)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율슨 씨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만나지 못할 것 같다. 미국이 이러한 태도이니 다른 나라와 오죽하랴. 평화회의의 주도권은 5개 강국에게 있다. 일본이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인도와 베트남 때문에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한국 혁명이 발발한 후에는 유럽의 정계가 지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신문에서는 모두 논평을 하고 있다. 한국 임시정부의 수립 상황에 대하여 전문적인 보도를 하였다. 이들 나라의 성원이 대단하다. 김규식의 발언은 사람을 충분히 감동시키고 있다. 미국과 상해에서 김규식에게 보내온 전보 가운데 세 가지가 주목된다.⁵⁹⁾

한국의 독립운동이 결코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며 평화적임을 알리면서 동시에 일본의 야만성을 폭로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⁶⁰⁾ 이 평화회의에 대한 회의적인 기사도 게재하였다.⁶¹⁾ 특히 김규식

59) 『국민공보』 1919년 6월 20일자, 「韓國獨立運動與和平會議」.

60) 이 기사외에도 파리강화회의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컸다는 기사들이 게재되었다(『국민공보』 1919년 6월 21일자 「韓國獨立運動與和平會議」). 김규식의 외교 활동은 그가 영문으로 작성하여 각국 대표들에게 전달한 독립청원서에 잘 나타나 있다. 청원서 제목은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및 독립국가로서 한국의 재편성을 위한 한국국민과 민족의 주장’으로 1919년 4월 파리강화회의 의장 클레망소에게 발송된 후 동년 5월 12일 율슨 대통령 및 로이드 조지 영국 수상에게 14일에는 각 대표단에 각각 발송, 배부되었다(최덕규, 「파리강화회의(1919)와 김규식의 한국독립외교」, 『서양사연구』 25, 2015, 142쪽).

61) 『국민공보』 1919년 6월 18일자, 「韓人請願難達到」.

의 활동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시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무엇보다도 평화회의 대표의 활동이 성공적이든 아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한국의 독립운동이 성공할 것이라고 진단하였다.⁶²⁾ 혼재된 기사 게재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인식의 한계일 수도 있다. 이어서 『국민공보』는 6월 24일자에 김규식이 신한청년당 명의로 파리강화회의에 보내는 서신을 게재하였다.⁶³⁾ 한국이 원동 평화의 핵심이며, 한국이 평화롭지 못하면 원동 지역의 모든 민중들도 불행하고 결국 일본은 만주와 시베리아를 침략하여 동북아 평화의 가장 큰 적으로 등장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그가 프랑스 파리로 출발하기 전에 치밀하게 활동계획을 세웠으며, 그 핵심에 각국의 동정과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선전 및 홍보활동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⁶⁴⁾

한편 3·1운동을 지켜보면서 중국인들은 자성의 목소리를 내었다. 『국민공보』에서는 서양 언론사가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기사를 1919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에 걸쳐 게재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기까지 한국의 역사를 보면 지금의 중국 상황과 다른 점이 얼마나 될까. 내분이 끊이지 않고 國勢가 무너졌다. 관료가 부패하여 권세와 이권 다툼에만 열을 올린다. 외부의 세력은 침략을 위해 음모계계를 일삼는다. 당파들은 서로 다투고 국가의 권리를 아주 쉽게 외국에 내준다. 이들은 외국 원조를 끌어들이어 이에 의거하여 경쟁 상대를 제거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 결과 망국의 화를 자초하였다. 오늘날 한인들은

62) 『국민공보』 1919년 6월 21일자, 「韓國獨立運動與和平會議」.

63) 『국민공보』 1919년 6월 24일자, 「新韓靑年黨致和平會議書」.

64) 정병준, 「1919년-파리로 가는 김규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2017, 101쪽.

어떠한 원망과 울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공정한 안목을 가진 사람이 한국의 역사를 읽는다고 하면 독립을 상실한 원인의 절반은 일본이 무력으로 정복한 탓이고 다른 절반은 한국 인민이 나라를 팔아 넘긴 간교한 음모를 보고만 있던 데 있다. 이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확실한 사실이라 하겠다. 지금 중국의 사정이 위에서 살펴본 한국의 사정과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중국의 내부가 분열되고 외부 세력이 내지를 10마일 이상 침투하였다. 매일같이 여러 신문에 실리는 북경 전보를 접하다 보면 이런 사정을 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과도기적인 시대라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의 위험도에 대해서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30년래의 역사를 보면 믿음이란 조금도 없고 오로지 甲國이 乙國과 싸워 서로 쟁탈을 도모했던 역사라 하겠다.⁶⁵⁾

나) 오늘날 중국의 주권은 이미 풍전등화라 하겠다. 그러나 두 가지 일만은 주의를 돌려야 한다. 하나는 중국 관리와 중국 인민의 문제는 경계선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인민의 평화와 자급자족하는 문제는 부패한 관리와 다르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발생한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으로 충분하다. 인민의 우매와 비겁함은 관료들에 비해 절대 심각하지 않다고 하겠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일들은 비참하기 그지없다고 하겠다. 그들의 수요가 억 명에 이르나 모래알처럼 갈라져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모두가 외부 세계의 압박에 의하여 저항할 힘이 없고 국민의 권리를 상실했을 뿐이다. 탐관오리들은 탐학에만 전념하고 외국의 침략을 일삼으니 백성이 병들고 나라가 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웃 나라 한국이 20

65) 『국민공보』 1919년 5월 24일자, 「西報論高麗與中國之比較」.

세기 아시아의 좋은 보기가 하겠다.⁶⁶⁾

다) 지금의 중국 미래는 모든 사람이 강가에서 손발이 뾰뾰 묶여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요청하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중국인민과 함께 지낸 바 있고 중국을 동정하는 사람이라면 중국의 광명한 역사에 감탄하고 찬란한 성과에 존경을 표한다. 그런데 오늘의 중국 상황에 대해서는 지극히 애처롭게 비통하게 생각하고 분개한다.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다. 한인들의 訴狀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다. 이를 널리 배포하여 각 지역의 官衙·會館·寺院·학교 등에 붙여야 할 것이다. 만약 중국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옛 사람들의 기세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기필코 일어나서 그들의 속박과 약탈에 저항할 것이다. 오늘날 국민은 나라를 지배하는 자를 따른다. 그러나 중국인은 그렇게 못하고 있다(중국인의 행동을 보면 그렇게 할 희망이 매우 적다). 기타 각국은 각자의 책임을 다한다. 또한 각국은 하나로 단합하기를 시도한다. 일본도 여기에 속해 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국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울려 생긴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동방의 희망은 파리에 집중되었다 하겠다. 만약 세계적인 결함이 새로운 국제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면 중국은 그런대로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이 중국의 본보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민의 운명은 금후 6주에 달렸다 하겠다.⁶⁷⁾

『국민공보』가 이들 기사를 게재한 것은 중국인들이 향후 어떠한 길을

66) 『국민공보』 1919년 5월 25일자, 「西報論高麗與中國之比較」.

67) 『국민공보』 1919년 5월 26일자, 西報論高麗與中國之比較

가야하는지 3·1운동과 한국독립운동이 그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한국의 처지가 결코 중국과 다르지 않으며, 중국 역시 외세의 끊임없는 간섭과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3·1운동과 같은 전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이것은 5.4운동 당시 북경대학의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강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⁶⁸⁾ 특히 한국 독립운동의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국의 영토인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크게 보도하였다.⁶⁹⁾ 다만 장사 『대공보』가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정과 수립현황에 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던 것에 비해서 『국민공보』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대해서는 지면을 많이 할애하지 않았다. 각 신문마다 논조는 약간 다르지만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동관계는 명확하게 파악하였던 것 같다.

V. 맺음말

중국에서 활동했던 한국독립운동단체는 1920년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제1회 독립선언기념식을 거행한 이후 해마다 3·1운동을 기념하고 있었다. 그만큼 3·1운동에 대한 독립운동가들의 인식은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인들과 공동으로 항일전선을 구축하는데도 3·1운동이라는 거대한 민족적 함성은 중요한 밑바탕이었다. 그리고 중국인들에게 비친 3·1운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한 한국인들의 몸부림이었던 것이다.

68) 최용수, 「조선 3.1운동과 중국 5.4운동의 비교」, 『국사관논총』 49, 1993 참조.

69) 『국민공보』 1919년 6월 21일, 「韓國獨立運動與平和會義」.

이 글에서는 북경에서 발간한 『국민공보』 기사 가운데 3·1운동 관련 기사를 어떠한 형태로 게재하였는지를 정리하려 했다. 먼저 3·1의 원인으로 민족자결주의를 비중있게 다루었으며,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일제의 야만성에 관한 기사를 비교적 많이 게재하였다. 2·8운동에 대한 부분은 장사 『大公報』에 게재된 것과 유사하지만 비교적 자세하게 2·8독립선언의 과정을 다루었다. 또한 『매일신보』에 보이는 왜곡된 3.1운동 사실을 지양하고 보다 명확한 논조의 글과 정보를 실었다. 일제의 목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국민공보』는 3·1운동과 관련된 특이한 부분도 게재하였다. 대표적으로 중국으로 망명하여 의친왕과 독립운동을 도모하고자 했던 하란사의 죽음을 그의 생애와 함께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3·1운동 전개과정에서 일제가 한국인들의 인체에 가한 반인륜적 처서에 대해 분개하는 기사가 많았다. 각 지역의 가옥을 파괴하거나 운동의 거점이었던 교회를 소각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그 가운데에는 제암리 학살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학살 속에서도 한인들의 혁명의 열기는 결코 식지 않았다고 논평하였다.

특히 3·1 독립선언과 파리강화회의의 임시정부와의 연계성을 확인하는 기사가 눈에 많이 띄었다. 김규식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활동했던 파리강화회의와 김규식의 구미세력에게 보냈던 편지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였다. 이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결코 무력적인 방법이 아니며 평화적인 방법이었음을 알리는 동시에 일본의 야만성을 폭로하기 위함이었음을 강조한 기사였다.

또한 3·1운동이 중국인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 지 자문하는 기사도 게재하였다. 한국의 처지가 결코 중과 다르지 않으며, 중국 역시 외세의 끊임없는 간섭과 침략을 받아왔기 때문에 3·1운동과 같은 전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이다. 요컨대 『국민공보』 기사는 무엇

보다도 기본적으로 비폭력 평화적인 독립선언을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제국주의는 가혹한 탄압으로 일관하였음 충분히 알 수 있다. 중국인들이 바로 본 일본제국주의 학살의 실상, 나아가 중국 지식인들이 3·1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인식을 통해 3·1운동 100주년의 현재적 의의를 되새기는데 이 글의 목적이 있다. 향후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언론에 보이는 3·1운동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2019.04.23 투고 / 2019.06.05 심사완료 / 2019.06.05 게재확정)

[Abstract]

The Development Process and Meaning of the 3.1 Movement
in Chinese Newspapers
– Focusing on the Guomingongbao(國民公報) in Beijing–

Kim, Joo-yong

Foreign media coverage of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played an important catalyst in enhancing the status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This article looked at the causes and processes of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declared independence through a book published in Beijing, China. The Guomigongbao(國民公報) in Beijing, the official newspaper of the Joseon Governor-General's Office, showed distorted images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which was the biggest cause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various anti-humanitarian acts during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He also mentioned the evaluation of Koreans who continued to enjoy the heat of the revolution in the face of such oppression and slaughter and the position that the Chinese people should have in the future. The paper did not just cover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but apparently tried to convey through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how China's situation is not much different from Korea's and should counter anti-imperialism. Chinese intellectuals were already realizing that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was close to them.

□ Keyword

3.1 Movement, Guomingongbao(國民公報),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Conference on the discuss peace of Paris

[참고문헌]

『국민공보』

『대공보』

『독립신문』

『UPI뉴스』

김선진, 『일제의 만행을 고발한다』, 미래문화사, 1983.

국사편찬위원회, 『한민족독립운동사』 3-3.1운동, 1988.

독립기념관, 『중국신문 한국독립운동기사집』 1, 자료총서 24, 2008.

김창수 · 김승일, 『해석 손정도의 생애와 사상 연구』, 넥세스, 1999.

강영심 · 김도훈 · 정혜경, 『1910년대 국외항일운동 Ⅱ -중국 · 미주 · 일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方漢奇 · 張之華 主編, 『中國新聞事業簡史』,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全國圖書館文獻築微復除中心, 『中文報紙縮微品目錄(1), (2)』, 中國書籍出版社, 1993.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서대문형무소 3.1운동 수감자자료집』 1 · 2 · 3, 2019.

서울역사박물관, 『서울과 평양의 3.1운동』, 2019.

金光洙, 「3·1獨立運動에 대한 中國言論界의 反應」, 『한국민족독립운동사의 제문제』, 하석김창수교수화갑기념사학논총간행위원회, 1992.

崔龍洙, 「周恩來와 조선 항일투사들」,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0, 1998.

崔龍水, 「朝鮮 3·1運動과 中國 5·4運動의 比較-中國史料를 中心으로 하여-」, 『國史館論叢』 49, 1994.

석원화 · 심민화 · 패민강 엮음 · 김승일 옮김, 『중국언론,申報에 그려진 한국근현대사』, 역사공간, 2004.

- 김성은, 「신여성 하란사의 해외유학과 사회활동」, 『사총』 77, 2012.
- 김주용, 「중국언론에 비친 3·1운동의 전개와 영향-장사 대공보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97, 2010.
- 김주용, 「독립기념관의 중국지역 독립운동 사료수집 현황과 과제」, 『역사와 담론』 69, 2014.
- 이운상, 『3.1운동의 배경과 독립선언』, 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9.
- 이태진, 「고종황제의 독살과 일본정부 수뇌부」, 『역사학보』 204, 2009.
- 정병준, 「1919년-파리로 가는 김규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0, 2017.
- 최덕규, 「파리강화회의(1919)와 김규식의 한국독립외교」, 『서양사연구』 25, 2015.
- 황민호, 「『매일신보』에 나타난 3·1운동에 대한 인식과 친일논리 - ‘기획 기사’의 내용을 중심으로 -」,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0, 2017.

